

[ACTS 29 농어촌교회현장]

목마름에 손 내미는 울릉도, 독도

2004 / 페이지 수: 2

경북 영천 태생의 최인회라는 젊은이가 1896년 울릉도 석포동에 입도해 교회를 개척한 이후 울릉도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땅이 됐다.

이 교회는 석포침례교회로 이어져 10여 명의 단출한 규모가 됐지만 거룩한 영향력은 섬 전체로 번져 현재 침례교 17개, 장로교 16개, 감리교 2개, 순복음교 1개 등 모두 36개 교회를 낳는 데 어머니역을 감당했다.

70% 이상이 뜨거운 기독교인

한 때 3만 명에 육박하던 주민수는 현재 7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도 뜨겁다. 식당, 숙박업소, 토산품 가게, 그 어딜 가도 성구가 적힌 액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동네마다 가장 큰 건물이 또한 교회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시로 교회를 찾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

이런 가난한 신앙은 섬 지방이면 의례히 있기 마련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일찌감치 태평양 바다에 몰아넣었다. 풍어제 등으로 안전과 풍어를 빌던 모습은 예배로 대체됐다. 이렇듯 울릉도 교회는 캄캄한 밤바다에 불을 밝힌 오징어잡이 배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영혼을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영적위기, 회복의 바람 일으키는 리더십

하지만 최근 울릉도 교회는 긴장하고 있다. 천부교회 안종진 목사는 “잠시 쉬어가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 이로 인해 잘 양육 받지 못한 성도님들”을 언급하며 울릉도의 영적 위기를 지적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은 반전되는 분위기다. 여호수아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입도, 순결한 비전으로 이 땅을 새롭게 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목회

새롭게 품은 비전은 여기저기서 움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 목사는 “재정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공급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냈다.

수원에서 건축한 교회를 물려주고 빈손으로 울릉도로 순종해 들어온 현포침례교회 조용호 목사는 야무진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앞 넓은 해변에 고깃배 두 척으로 불을 밝히고 윤형주 장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콘서트와 간증을 하는 것도 그 꿈 중 하나다. 조 목사는

최근 천부교회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지구촌교회 유지컬 팀의 공연을 떠올리며 문화콘텐츠가 강한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소망했다.

지난 8월 12일 송유신 장로를 위시해 현포교회로 아웃리치를 온 일명 비전선교 팀(회장 김준수 집사)은 조 목사의 비전을 공감을 표하고 함께 뛰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이들이 지원한 위성수신안테나가 이 교회에 달렸다.

노인대학의 꾸준한 성장, 육지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중 고등학생들에게 공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 의료선교 확대,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일 등이 또한 울릉도에 절실하다고 조 목사는 전한다.

천부침례교회는 울릉읍을 제외하면 100여 명이 출석하는 가장 큰 교회다. 역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안 목사는 “천부교회가 복면, 서면의 연합집회 장소로 드러지길 바란다.”며 역시 온누리교회와의 연합을 갈망했다. 특히 천부교회는 본당 3층을 도서관으로 개조해 청소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비치된 책장엔 반에도 못 미치는 서적이 진열돼 있어 이를 지켜보는 안 목사는 안쓰럽지만, 청소년들은 아예 이곳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애착을 보인다.

한편 700여 명이 출석하는 울릉도 최대의 울릉동광교회(조석종 목사)는 지난 체인지업 때 지역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나누는 등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누리TV, 바다를 건넌 오아시스

이처럼 담대한 비전과 갈급함이 병존하는 울릉도의 경우, 온누리TV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간 반가운 선물이 아니다. 추산침례교회 선종자 사모는 요즘 하루 종일 온누리TV를 켜 놓은 은혜에 푹 빠져 있다. 김만수 목사가 받는 목회 적 도움도 기대이상이다. 가수 김완선의 부모이기도 한 김성남 장로와 한수자 권사를 비롯한 10여 명 남짓의 성도들은 주일이면 사택에 모여 온누리TV를 보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단의 방해, 목마름 채우고 일어나야 할 때

누적된 영적 갈급함이 안의 문제라면 밖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북 청송 등지에 무차별적인 토지매입과 신앙촌 출입통제 등으로 사이 비단체로 낙인찍힌 세무가 대표적이다. 세무는 섬 내륙의 서달 지역을 매입, 신앙촌을 만들고 있다는 게 안 목사의 전언이다. 이 외에도 도동에는 구원파 2곳과 여호와증인 1곳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다. 영적인 깊이를 일궈내지 못하면 이단의 성장은 가속도를 낼 것이다.

울릉도는 강하면서도 약하다. 비전을 성취하고 싶어도 섬이기에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이 크다. 울릉도가 간절히 원하는 영적 협력의 꿈,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ACTS 29의 비전이기도 하다.

* 출처 : 온누리신문